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공모 착수

7월 중 사전 참가 신청 접수… 현장 설명회 거쳐 9월 당선작 선정키로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MICE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의 밀그림을 그린다.

시는 전문가 자문 및 각종 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공모 지침안을 가지고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설계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전시컨벤션센터를 통한 대규모 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를 위해 주변과의 연계성과 공간의 효율성 등 실용적 측면을 우선으로 고려해 전북 및 전주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건축물로 지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주 전시컨벤션센터는 옥내 전시장과 옥외 다목적광장을 포함해 2만㎡의 전시 면적을 확보하게 되며,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20실 이상의 중·소 회의실 등을 갖춘 국제회의 시설 규모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달 중 약 137억 원 규모로 8개월간 전시컨벤션센터 설계에 참여할 건축사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현장 설명회를 거쳐 오는 9월 공모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MICE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인 전시컨벤션센터의 밀그림을 그린다.

모인 작품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최종 선정해 설계권을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을 완료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시시설 건립계획 심의 통과 이후 2월부터 본격적으로 규모와 배치 등의 검토를 위해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주변 환경 및

기능 등에 적합한 내실 있는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그동안 시가 그려온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큰 변경 없이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이와 함께 시는 속도감 있는 MICE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조사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 하반기 중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종 MICE복합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 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전시·회의·문화·창업·상업 등이 융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시컨벤션센터의 필수 지원시설인 소박 및 관제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민간사업자(롯데쇼핑)와 설계단계부터 시설물 간 상호 조화롭게 연계되며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해 단계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복합단지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동시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 실장은 "전시컨벤션센터가 전북 및 전주의 다양한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과 전주 대표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면서 "앞으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시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재도약과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생명 구해

활동 중 벌에 쏘이 쓰러진 노인 발견 후 응급조치

전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활동 중 벌에 쏘이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한 미답 사례가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준)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단 '농촌인력증개활성화지원단'에 참여중인 김명복 씨(68세)와 박영문 씨(66세)는 지난 4일 오전 농촌인력증개 흥보 활동을 위해 완산구 중인동 소재 비닐하우스 농가를 찾았다가 길가에 쓰러져있는 조모 씨(남, 68세)를 발견했다.

쓰러진 조모 씨가 벌에 쏘이 의식이 흐릿하다는 것을 확인한 두 참여자는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늘막을 만들어 환자를 보호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다.

두 참여자는 구급 차량이 도착한 이후에는 자세한 경과를 설명하며 환자 이송에 도움을 줬으며, 그 덕분에 조모 씨는 구급차 안에서 의

식을 회복한 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다.

김효준 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김명복 님과 박영문 님이 그동안 전주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근무하며 기관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이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던 힘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기관장으로서 매우 뿌듯함과 보람됨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미답은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무더위 날려줄 '서학광장 바닥분수' 가동

전주시, 경관시설 조성사업 완료… 매일 오전 8~9시 · 오후 12~9시 운영



전주 남부권 교통의 중심지인 서학광장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무더위를 날려줄 바닥분수가 가동된다.

바닥분수는 시운전 가동을 마치는 대로 이달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매시간 점각부터 40분간 가동 후 20분간 휴식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서학광장에 조성된 바닥분수와 휴게시설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야외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 실장은 "서학광장이 도심 속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청량제와 같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수질 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물 공급과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해바라기 봉사단은 대명까치맨션 경로당에서 50여 명의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성 가득한 영양찰밥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주시 효자1동 해바라기봉사단, 영양찰밥 나눔봉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해바라기 봉사단(회장 김순진)은 대명까치맨션 경로당에서 50여 명의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성 가득한 영양찰밥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효자1동 해바라기봉사단 회원 15여 명은 정성껏 준비한 영양찰밥과 밀반찬, 과일 등을 대접하고 어르신들에게 정겨운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알찬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김순진 효자1동 해바라기봉사단 회장은 "오전부터 열심히 노력해준 봉사

단원분들께 감사하며, 어르신들이 맛 있게 식사를 해주셔서 보람차고 앞으로도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숙 효자1동장은 "효자1동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으로 봉사해 준 해바라기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